

LG 벤처투자 뉴스

Special Interview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김형수 이사

1. 지난날에 정부가 벤처캐피탈 활성화정책을 발표했는데요, 그 의의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번에 발표된 벤처활성화 보완대책은 벤처관련 자본 시장의 확충과 금융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두어 코스닥 및 벤처캐피탈이라는 자본시장을 선진화시키는 시도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벤처기업이 아닌 벤처캐피탈이 핵심이 되었습니다. 벤처캐피탈리스트들의 실력은 더욱 변별력이 생길 것이고 VC의 벤처기업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VC환경의 선진화에 다짐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협회가 앞으로 해 나가고자 하는 이슈들은 어떻게 있는지요.

우선 VC환경 선진화를 위해 관련법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M&A시장의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인수시장은 거의 90%가 IPO에 맞춰져 있지만 미국의 경우 M&A시장이 8, IPO가 2입니다. M&A시장이 활성화 되면 인수시장이 넓어지고 그만큼 벤처 투자도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두번째로 벤처캐피탈리스트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고려 중입니다.

3. 지난 29일 모태펀드결성식 및 '한국벤처투자'가 출범했는데요 느끼는 바가 있으시다면요?

모태펀드가 1조 펀드가 되면서 정부가 벤처투자에 대한 장기 정책을 세우는 것이 가능해졌고 시장 트렌드에 대한 능동적 대처도 손쉬워졌습니다. 이번 모태펀드는 벤처산업육성 및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4. 마지막으로 LG벤처투자가 앞으로 나아갈 점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세요.

LG벤처투자는 그동안 정도경영으로 업계에 모범이 되어왔습니다. 경영의 투명성 뿐 아니라 투자실력도 매우 우수하여 업계의 리더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드러나지 않게 다양한 사회활동을 실천하고 있어 무척 보기가 좋습니다. 지금껏 해온 것처럼 벤처캐피탈의 이미지제고와 리더역할을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6월 IPO소식

☆ 이노칩테크놀로지, 코스닥 예비심사 통과

- 사업분야 : 세라믹 수동소자 부품개발 및 생산
- 심사통과일 : 6월 23일

☆ 휴림 인터랙티브, 클리어링크 등에 우외상장

- 사업분야 : 모바일 멀티미디어 & 보이스솔루션
- 상장일 : 미정 (6월 14일 주식교환 결정)

6월 투자업체 소식

☆ 케이이엔지 LPL에 36억, 대만 CPC에 10억 공급 계약

케이이엔지(대표 김동관 <http://www.k-eng.co.kr>)는 22일 대만 CPT(청와 락처 튜브)와 10억1228만원 규모의 LCD 제조 장치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LG필립스 LCD와도 36억3550만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니트젠, 중국 아이얼과 전략적 제휴

니트젠(대표 배영훈 <http://www.nitgen.com>)은 중국 최대 가전업체인 아이얼그룹의 스마트 홈 및 보안사업 본부인 아이얼홈인티그레이션(Haier Home Integration)과 생체인식 사업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전략적 제휴로 니트젠은 지문인식 도어락, 근태관리기, 출입통제기, 지문인식 모듈 등 모든 제품(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을 아이얼 42개 유통망을 통해 중국 전역에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니트젠은 제품 공급 이외에 기술지원과 마케팅 활동에도 참여하게 된다.

☆ 엔텔리전트, 7월1일부터 '삼국지무한대전2' 모바일 서비스 개시

엔텔리전트(대표 권준모, www.entelligent.co.kr)가 화제작 '삼국지무한대전2'를 선보였다. '삼국지무한대전2'는 지난해 2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네트워크 게임의 시대를 연 '삼국지무한대전'의 후속작이다. 엔텔리전트는 2004년 최고의 게임으로 꼽히는 '삼국지무한대전'의 메이저 개발사로 지난 5월 넥슨이 엔텔리전트를 인수했다.



이노칩테크놀로지

http://www.innochips.co.kr

대표이사: 박인길

설립일: 2000년 4월

사업분야: 세라믹 수동소자 부품 개발 및 생산

이노칩테크놀로지는 Chip Varistor, ESD Filter 등 세라믹 수동소자 부품을 개발, 생산하는 기업이다.

박인길 대표 등 창업멤버들은 KAIST 박사 출신이며, 국내 대기업에서 MLCC 개발, 생산 경험을 바탕으로 이노칩테크놀로지를 국내 최고 수준의 R&D와 생산기술 능력을 보유하도록 이끌었다.

단말기의 다기능화, 멀티미디어화에 따라 향후 세라믹 수동소자의 수요의 증가세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노칩테크놀로지는 이러한 시장 환경을 선도하는 제품 개발력으로 국내 시장에 이어 세계시장에서도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

Chip Varistor, ESD Filter에 이어 Resonator, 각종 센서, 기타 고주파 복합 칩 부품 등 제품군의 다양화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그 노력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머지않아 세계적인 세라믹 소자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품 소재 산업의 중요성과 그 난이도를 감안하였을 때, 이노칩테크놀로지는 초기 단계인 국내 부품 산업의 대표주자로서, 벤처 산업에 하나의 이정표가 될 만한 기업이 될 것이다.

■ 국민연금, 벤처투자 위탁운용사 6개 선정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벤처투자 위탁운용사로 케이티비네트웍, 동원창업투자, 동양창업투자, 산은캐피탈, 네오플릭스, KB창업투자 등 6개사를 선정·발표했다. 국민연금은 6개 위탁운용사를 통해 총 1500억원을 벤처에 투자할 예정이며 케이티비네트웍, 동원창업투자, 동양창업투자에 각각 300억원, 산은캐피탈, 네오플릭스, KB창업투자에 각각 200억원을 투자해 벤처조업을 결성하게 된다.

■ 29일, 모태펀드결성식 및 '한국벤처투자' 출범식

벤처산업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출범하는 1조원 모태펀드의 투자관리기관 '한국벤처투자(대표 권성철·김경식)' 29일 개소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이 기관은 △펀드운용팀 △사후관리팀 △전략기획팀 △리스크관리팀 등 총 4개팀에 19명으로 구성돼 본격적인 펀드 출자 활동을 시작한다.

Special Event ● ● ● ● ●

■ LG트윈스 vs 안와이글스, 야구경기 관람

LG벤처투자와 안와기술금융 함께 응원

LG가 안와를 8대 7, 1점차로 이겨

LG벤처투자는 지난 6월 24일 저녁, 안와기술금융 멤버들과 잠실경기장에서 야구를 관람했다. LG트윈스와 안와이글스 등 이기는 쪽이 맥주를 사기로 하고 긴장속에 경기를 지켜보았다.

경기는 1회말 0:2로 지고 있던 LG가 2:2 동점을 만든 뒤 6회말까지 8:3으로 넉넉하게 이끌었다. 하지만 7회초부터 안와가 8:7 까지 따라와 긴장을 뽐낼수 없었다.

그러나 결국 LG가 8대 7, 1점차로 안와를 이겨 경기는 끝났다. 아쉬워하는 안와기술금융과 기분좋은 LG벤처투자 멤버들은 승부에 상관없이 시원하게 맥주를 들이켜며 금요일 하루를 마감했다. ☺



즐겁게 야구관람을 하고 있는 LG벤처투자와 안와기술금융 멤버들